

빈곤층 청소년의 복지적 소외 양상에 관한 질적 연구

조흥식*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소외문제를 복지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빈곤층 청소년의 복지적 소외 양상과 욕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10명의 빈곤층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빈곤층 청소년들의 복지적 소외 양상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소외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도 상당히 다양함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빈곤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보편적인 복지정책과 함께, 각자 독특한 청소년의 욕구에 따른 행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복지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구체적인 정책과제로 1) 공공부조의 확대와 가족수당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적지원; 청소년카드의 활용 2)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과 학습공간 확보 3) 교육지원 확대 4)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5) 직업훈련의 지원과 다양화 6)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 확보 7)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에의 참여 확대 8) 청소년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성 등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빈곤층 청소년, 복지소외, 사회복지정책

*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관심분야로는 빈곤가족론, 사회복지서비스론, 사회복지실천분석, 장애인복지 등이다. 저서로는 《가족복지학》(공저, 2006), 《여성복지학》(공저, 2006), 《한국장애인복지 50년사》(공저, 2006), 《비교빈곤정책론》(공저, 2005) 《학교사회복지의 이론과 실제》(공저, 2004), 《The Social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in Korea》(공저, 2001), 《산업복지론》(공저, 2000) 등 다수(연락처: 02)880-6459, e-mail: chohs@snu.ac.kr).

1. 머리말

본 연구의 목적은 청소년의 소외문제를 복지적 측면에서 파악하여 정책적 과제를 제시하는 데 있다.

청소년과 청소년 문제에 대한 논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늘 인류의 관심사가 되어 왔다. 19세기의 산업혁명과 그 이후 세계 각지에서 공업화가 이루어지면서 경제활동에 참가하려는 개인에게 요구되는 지식이나 기술의 내용과 양이 증가되었고 따라서 이를 습득하기 위한 교육, 훈련기간이 연장됨으로서 청소년기가 대두하게 되었다. 즉 공업화와 도시화, 정규교육 및 취업준비 기간의 연장 등의 요인 때문에 청소년기는 중요한 시기로 받아들여지게 된 것이다(조홍식, 1996: 304-305).

오늘날 청소년 문제와 관련해 볼 때, 청소년의 개인적 욕구 충족의 미해결 등 청소년 문제가 이미 사회문제로 되고 있어 이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게 사실이다. 이러한 청소년 문제를 포함한 제반 문제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needs) 불충족은 물론 사회적 소외, 차별, 불평등의 문제로까지 확대되어 가며, 이러한 다양한 제반 사회문제를 대처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이 바로 사회복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오늘날 이러한 기본적인 보편적인 인간의 욕구를 해결하기 위한 사회복지 영역으로 소득보장, 의료보장, 교육보장, 고용보장, 주거보장,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공통적인 영역에서 사회복지가 해결해야 할 표적이 되는 대표적인 사회문제는 빈곤이라고 하겠다.

그리고 청소년의 복지적 차원에서 복지대상 문제별로 나누면 정서·행동장애 청소년, 학대·유기청소년, 가출·비행청소년, 약물남용청소년, 장애청소년, 빈곤가정 청소년 및 소년소녀가장청소년 집단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4: 43-51). 이와 같이 청소년복지대상을 몇몇 유형으로 분류할 때 우리사회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존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청소년이라는 심리사회적 발달단계에 관련된 문제와 함께 취약한 환경에서 비롯된 위험에도 동시에 노출되기 때문에 더욱 심각한 어려움을 겪는 집단은 바로 빈곤층 청소년(McComick & Brooks-Gunn, 1989; Huston, 1991; Brooks-Gunn 외, 1995)으로서 이들에 대한 복지

정책이 우선적으로 주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청소년 소외 가운데 복지적 소외 현상은 빈곤에 의해 기인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여기서는 청소년의 복지적 소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빈곤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빈곤층 청소년에 대한 우리나라의 연구는 첫째, 빈곤층 청소년 자체에 대한 것보다 모자복지, 가족복지적 차원에서 빈곤가족 연구의 한 부분으로의 연구(김정자 외, 1990; 김인숙, 1994)와, 둘째, 빈곤층 청소년의 심리적 문제 및 적응 요인을 다룬 연구(전재일·조윤희, 1990; 최윤정 외, 2004), 셋째, 빈곤층 청소년의 심리사회적 환경 특성 및 실태에 관한 연구(이순형 외, 1991), 넷째, 빈곤 청소년에 대해서 위험-보호요소 상호 모델에 입각해 경험적으로 논증한 연구(박현선, 1998), 다섯째,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복지지원을 중점적으로 다룬 연구(노혁, 2004) 등이 대표적이며, 외국의 경우, 빈곤층 청소년의 문제에 대한 연구들(McComick & Brooks-Gunn, 1989; Huston, 1991; Brooks-Gunn 외, 1995)은 상당히 많다. 그러나 빈곤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복지적 소외 양상을 보는 질적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빈곤층 청소년 간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사회적 가치나 행동 등을 고려하지 못한 채 빈곤층 청소년들을 하나의 범주로 간주하여 연구함으로써 다양한 청소년복지정책을 모색하지 못한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빈곤가족 연구가 아닌 청소년 연구로서 빈곤층 청소년 개개인을 연구 대상으로 하고자 하며, 또한 빈곤층 청소년을 계층별 단일범주로 획일화하여 보기보다는 빈곤층 내에서도 개개인마다 사회적 가치의 수용정도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다양한 범주로 보고 그러한 다양한 범주에 따른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첫째, 우리나라 일반적인 빈곤층이 갖고 있는 소외 현상을 기존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며, 둘째, 빈민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면접사례조사를 통하여 빈곤층 청소년의 소외 양상과 욕구를 파악하고자 하며, 셋째, 이를 토대로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 과제를 제시하고자 한다.

2. 빈곤계층의 소외 현상

일반적으로 빈곤은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심리적 측면에서 규정될 수 있다. 경제적 빈곤은 일정수준의 생계비를 감당할 수 없는 저소득을 말한다. 그리고 사회적 빈곤은 빈곤층의 사회, 문화적 성격을 그들 나름대로 독특하게 발전시키는 행위 양식, 즉 문화와 제도를 말한다. 예로서 사회 속에서 소외와 고립의 현상 및 집단생활과 동료들과의 불완전한 어울림 등을 속성으로 하는 빈곤문화의 창출을 들 수 있다. 심리적 빈곤은 빈곤한 자가 갖게 되는 각종 심리상태를 말하는데, 매사에 숙명적이고 운명적이며, 인지구조의 불안 등의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세 가지 빈곤의 측면은 어느 것이 원인이고 결과인지는 절대 인과율(absolute causality)로는 따질 수 없으며, 오히려 순환적 인과율(reciprocal causality)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보아진다(김일철·정영일, 1977: 138-139).

또한 빈곤은 객관적이고 동시에 주관적인 현상이다. 객관적으로는 기본적 욕구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소득이 적다는 것이고, 주관적으로는 자신의 무능력이 욕구와 기대충족에 대한 정서면과 결부되어 풍족한 생활양식과는 동떨어진 차별적인 느낌을 갖게 하는 것이다. 특히 현대의 기술과 상품 등의 개발은 사람들의 욕망과 기대를 자극하지만, 만성적으로 빈곤한 자들은 생존투쟁에 얽매임으로써 삶의 희망과 기대는 점점 둔화되기도 한다(Orcutt, 1977: 92).

이렇게 볼 때 빈곤문제는 표면상으로는 경제적 문제로 보이지만, 이와 함께 가족 구성원의 역기능문제, 심리적 문제, 정서적 문제가 항상 뒤따르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빈곤의 정의는 그 문제를 지닌 해당 사회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구조의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게 보통이다.

IMF 경제위기 이후 우리 사회는 사회안전망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채 대량 실업 사태를 맞이하게 되어 빈민이 양산되고 임시·일용직 노동자, 파출부, 행상 등 비공식부문 종사자, 영세사업자 등의 도시저소득층 실업자 가구의 빈곤화가 심각하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또한 여러 선행연구에서 경제위기 이후 빈곤가구의 수가 증가되고 이들의 생활이 전반적으로 어려워졌으며, 이 결과 사회양극화 문제가 심각함을 제기하고 있다(윤정혜, 1998; 이장원 외, 1998; 이주희, 1998; 한국

노동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9; 이영환, 2003; 조홍식, 2005).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빈곤층이 갖는 일반적인 소외 양상들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열악한 소득에 의한 생활의 불안정

빈곤층의 소득은 그 수준과 안정성에서 가족 생계를 진담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대부분의 빈곤가족들은 가족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하여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거나, 이도 안 되면 대부분 부채를 지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꾸려가게 된다. 그 결과로 나타나는 문제는 세습가능성이 높으며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어진다는 점이다.

2) 지속적인 주거불안정

주거지 불량과 비안정적인 문제, 단칸방의 문제 및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시간이 적다는 것과 여가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은 빈곤층이 주거와 관련해서 안고 있는 중요한 문제들이다.

3) 불안정한 고용상태

고용에 의한 직업활동은 빈곤 형성 및 지속에 가장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다. 특히 도시빈곤층은 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 영세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하층노동자로서, 불완전, 불안정 고용을 특징으로 한다. 즉 대부분이 기술수준이 낮고 종속성이 강하며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양상을 띠고 있다.

또한 도시빈곤층의 여성들은 대부분 영세한 하청공장, 가내수공업에 취업하거나 가정부업을 통해 부족한 생활비를 보충하고 있다. 빈민여성은 열악한 노동조건과 저임금에 시달리고 있으며, 가사노동과 탁아 등 3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이는 농촌여성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4) 방치되어 있는 빈곤층의 아동, 청소년

대부분이 맞벌이인 빈곤자녀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아동에게 충분한 정서적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관계로 모성박탈현상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 특히 청소년의 경우 제도교육으로부터 소외되고, 방과 후에도 혼자 남겨져 각종 안전사고의 위험이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과도한 TV 및 불량비디오 시청, 각종 오락 및 유흥산업에 노출되며 이는 곧 비행으로까지 이어진다.

5) 실업으로 인한 빈곤화에 의한 가족해체의 발생

최근 구미에서는 실업과, 재정적 압박, 그리고 부부 및 가족 갈등간의 연관성이 높음을 증명하는 연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대표적인 몇 연구들을 보면 다음과 같다(Vosler, 1996).

Broman 등은 실업에 의한 재정적 어려움은 가족에게 강한 부정적 영향을 주는데, 특히, 실업과 재정적 어려움이라는 두 가지 경험은 부모-자녀 갈등(자녀를 “때리는” 아버지 포함)의 가능성 증가뿐만 아니라 부부간 긴장과 갈등도 높게 예측됨을 밝혔다. Liem과 Liem은 강한 부부관계가 노동자와 아내에 미치는 실업의 부정적 심리적 영향을 완충할 수 있음을 밝힌 반면에, Aldous와 Tuttle은 실업이 공급자 역할의 변화(예, 여성이 일을 하게 되거나 직무 시간을 늘림)를 제공함으로써 인해 가족갈등을 야기시키는데, 특별히 아내가 처음으로 일자리를 갖게 되면 갈등이 더 심화됨을 지적하였다. 그리고 Targ와 Perrucci는 실업에 대한 부모의 반응은 분노, 적대감, 심지어 자녀학대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데, 실직부모가 인식하기를 그들이 경험하고 있는 경제적 어려움이 크면 클수록, 적대감이 더 커지며, 또한 적대감이 크면 클수록, 아동문제가 더 많아짐을 보여주었다.

우리나라의 경우 갑작스런 가장의 실직은 가정의 심각한 동요와 가정파탄의 상황에 이르게 함으로써 가족해체의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생계 때문에 아이를 영아원이나 육아원에 버려 IMF형 고아로 만들거나, 집을 떠나 방황하는 노숙자가 되는 참혹한 지경에 처하기도 한다. 이 뿐 아니라 가족간 별거, 가출, 이혼이 빈번히 발생하기도 하며, 심지어 자살까지도 하게 된다. 이로 인해 어린 자녀로

하여금 불안감을 갖게 하며,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자녀의 정서에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킨다(조홍식, 1998).

3. 빈곤층 청소년의 복지적 소외 양상과 욕구

빈곤층 청소년의 복지적 소외 양상과 욕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2004년 12월부터 2005년 5월까지 6개월 동안 서울시 관악구 빈곤지역 거주 청소년 7명과, 가출 남성 청소년을 위한 일시보호시설인 서울시내 청소년쉼터에서 보호받고 있는 빈곤층 가정 출신 청소년 3명 등 총 10명의 빈곤층 청소년에 대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다. 면접 장소는 사회복지관, 쉼터에서 주로 이루어졌으며, 때로는 가정 방문을 통해 이루어졌다. 면접 회수는 청소년 1명 당 2회씩, 그리고 1회 60분 정도 시간이 소요되었다.

대상자 선정은 빈민지역 거주 청소년의 경우 관악구 빈곤지역에서 빈곤층 청소년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종합사회복지관의 전문사회복지사와 동사무소 사회복지전문요원의 추천을 받아 소년소녀가장세대 청소년 1명, 근로청소년 1명, 결손가정 청소년 2명을 포함하여 7명을 유의표집하였고, 가출 청소년의 경우 조사 기간 동안 청소년쉼터에 있던 청소년 가운데 서울거주자가 아닌 경기도 수원시, 고양시, 인천직할시의 빈곤층 출신을 각각 1명씩 총 3명을 선정하였다.

한편, 심층면접과 관련하여 윤리적 고려사항을 다음과 같이 하였다. 첫째, 피면접자들은 이 연구의 자발적 성격을 이해하고 자신들의 면접참여를 중단할 권리가 있음을 사전에 주지시켰다. 둘째, 피면접자들의 이름은 연구에서 사용하지 않았다. 셋째, 피면접자들의 이름 및 직업, 지위도 면접에서 언급하지 않았다. 넷째, 사례에 연관되는 잠재적으로 노출 가능한 정보는 연구보고서에서 삭제하였다.

그리고 심층면접 내용은 기본적 인적 사항과 함께, 복지적 소외 내용과 욕구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복지적 소외 내용과 욕구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탐색적인 질적 조사의 지침을 사전에 만들어 면접에 임했다. 우선 복지적 소외 내용의 면접 조사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가정에서의 소득, 의료, 주거, 부모와 청소년 자신을 위한 사회복지서비

스 등 복지적 소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둘째, 학교에서의 교육과 관련된 지원, 사회복지서비스 등 복지적 소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셋째, 지역사회에서의 학습공간, 문화공간 등을 비롯한 문화복지, 사회복지서비스 등 복지적 소외 양상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또한 욕구 내용의 면접조사 지침은 다음과 같다.

첫째, 소득, 의료, 주거, 그리고 부모와 청소년 자신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관련하여 어떠한 욕구를 가지고 있는가?

둘째, 청소년 자신이 갖고 있는 교육욕구는 어떠한 것인가?

셋째, 청소년 자신이 갖고 있는 직업욕구는 어떠한 것인가?

넷째, 청소년 자신이 갖고 있는 문화욕구는 어떠한 것인가?

끝으로 이번 질적 연구의 자료 분석은 2단계로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1단계는 자료가 수집되는 시간 내내 이루어졌는데, 이 단계는 반구조화면접의 내용을 제공하는 것이었다. 2단계는 자료가 일단 수집된 후에 면접기록에 대한 심층검토로 코딩과 범주화를 하는 단계였다. 그리고 자료 분석은 내용분석을 기초로 피면접자들의 면접 반응에서의 공통된 주제를 발견하는 것에 목적을 두었으며, 공통된 주제가 나타나면 범주(category), 주제(themes)별로 나누어 코드 북에 기록하였다.

1) 조사사례 개요

빈곤층 청소년 사례조사 대상자 10명의 일반적 특성은 <표 1>에 있는데, 전반적으로 가정환경이 좋지 않음을 알 수 있다.

2) 복지적 소외 내용

빈곤자체가 다양한 청소년의 심리, 정서적 문제를 야기하는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라 하더라도, 빈곤으로 인한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에서의 복지적 소외 영향으로 인해 일반청소년에 비해 빈곤층 청소년은 자아 존중감이 약화되고 대인관

〈표 1〉 사례조사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령	학력	가족사항 및 경제력	개인적 특징	비고	
사례 1	15세	중 2	한부모세대로 모가 과출부일을 하여 생계를 꾸린다. 모가 젊고 건강하나 자녀양육에 관심이 적은 편이어서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98년도부터 누나와 함께 조부모와 생활하고 있다. 자활급여대상자로 학비 지원을 받고 있으며 조부모가 담배가게를 하여 생활에 보탬이 되고 있다.	담배와 술을 가끔씩 하며, 팔에 작은 문신이 새겨져 있다. 힘이 세지만 온순하고 착한 편이다.	결손가족
사례 2	14세	중 1	한부모세대로 자활급여대상자로 책정되어 있어 학비보조금을 지원받고 있다. 부가 선반공장에서 일을 하여 수입원이 있다. 부는 알콜 중독 증세가 있으며 성격이 괴팍한 편이다. 형제가 없다. 모는 1년전에 병으로 사망하였다.	귀염성이 있고 눈치가 빠르다. 술을 가끔씩 먹는다.	결손가족
사례 3	17세	고 1	부가 중등에서 일을 하고 있어 모와 생활하고 있다. 전문대를 중퇴한 누나가 있다. 모가 꽃꽂이 기술을 배우고 있는 중이며 부가 보내주는 수입으로 생계를 꾸리고 있다.	사교적인 성격이나 친구들과 휩쓸려 다니면서 비행, 절도 등 문제를 일으킨다.	소년소녀가장
사례 4	14세	중 1 (여)	모 가출 후 부도 사망하여 6세부터 조부모와 생활. 조부모가 구멍가게를 하고 있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생계비와 학비보조를 받고 있다.	어리숙하고 힘이 없으며, 장난을 좋아하나 순종적이다.	근로청소년
사례 5	18세	중졸	부가 청각장애가 약간 있어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고 모가 노점상을 한다. 자활급여대상자로 학비보조를 받고 있다. 부모가 자녀양육에 대해 관심은 있으나 제대로 양육을 못하고 있다. 여동생이 둘이며, 2년째 주유소 일을 하고 있다. 시간당 1,900원으로 하루 10시간씩 일하며, 1달에 2일 휴무.	반항심이 많고, 자존심, 독립심이 강하며, 술과 담배를 자주 한다.	
사례 6	17세	고 2 (여)	부는 건축일을 하던 일용직 근로자였는데 IMF 이후 실직한 후 집을 나가서 지금까지 연락두절. 여동생 둘(11세, 1세). 모가 공공근로를 하고 싶어 하나 막내 탁아 때문에 문제. 한시적 생활보호대상자로 생계보조를 받음.	내성적이어서 마음을 잘 털어놓지 않는다.	
사례 7	15세	중 2 (여)	부는 폐결핵 환자로 실직, 모는 7년전 교통사고로 인해 2급 지체장애인이 되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어렵게 생활. 남동생(초 6)이 있다.	밝고 명랑한 성격이나 알뜰하게 행동하는 경향이 있다.	

〈표 1〉 계속

연령	학력	가족사항 및 경제력	개인적 특징	비고
사례 8	16세 중 3	부는 건축일을 하고 있으나 진폐증으로 현재 투병중이다. 모는 작년 공장에서 다쳐 11개월 가량 치료를 받아 왔다. 누나는 청주에서 자취하고 있다. 생활은 저축한 것으로 연명하고 있음. 부부싸움이 자주 있다.	술, 담배, 패싸움으로 모와 자주 다투다 중 3초 때 가출함. 비교적 조용한 편이다.	경기도 수원 에서 가출
사례 9	16세 중 1 퇴학	초 5때부터 부모별거로 인해 부는 인천, 모는 성남에서 거주. 여동생(초 6). 부는 노동을 하며, 술만 먹으면 아이들을 구타함. 집털이하 다 걸려 경찰서에 드나들(5회). 중 1때 가출로 학교에서 퇴학당하였다. 현재 학교를 다니고 싶어 하며 모와 살기를 희망하고 있다.	초 6때 첫 가출. 자기중심적이고 고집스러운 면이 있다. 술과 담배를 잘 한다.	인천 에서 가출
사례 10	18세 중 1 자학	부 사망(7세), 모 사망(중 1). 고양에서 서울 고모(중 1)집으로 다시 고양 작은 아버지집(17세)으로 옮겨 다녔다. 18세초 때 가출함. 현재 여동생 둘(17세, 15세)도 가출한 상태이다.	삶에 대해 긍정적이며, 독립된 생활을 하기 원한다. 술, 담배를 잘 한다.	경기도 고양 에서 가출

계에 어려움이 있는 심리, 정서적 문제를 가질 뿐만 아니라 학교 부적응, 학습부진, 비행, 범죄 등의 위험한 환경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1) 가정에서의 복지적 소외 양상

첫째, 빈곤한 가정형편은 청소년 시기에 유행에 따라서 하고 싶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경제적 자원(용돈)을 궁핍하게 만들고 있다.

“제일 서러울 때는 용돈을 많이 갖고서 좋은 옷과 신발, CD 등을 마음대로 사는 친구들을 볼 때예요”(사례 1)

“PC 통신을 하고 싶지만 돈이 없어 못해요”(사례 6)

“나는 커서 돈을 벌어서 내 아이한테는 용돈을 퍽퍽 줄꺼예요”(사례 9)

“사고 싶고, 하고 싶은 것을 돈이 없어서 할 수 없을 때는 정말 흠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나요”(사례 3)

둘째, 빈곤한 가정형편은 건강과 의료에 대한 욕구를 채워주지 못할 때가 많다.

“저는 어릴 때부터 술을 먹어 속이 아픈데 약을 사먹을 돈이 없어요. 물론 제 잘 못이지만”(사례 8)

“저는 키가 작운데 키를 키우는 수술을 받고 싶지만 돈이 없어서 못해요”(사례 10)

“여기 얼굴에 있는 흉터를 누가 고쳐 준다면 한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사례 7)

셋째, 빈곤한 가정형편은 주거에 대한 박탈감을 갖게 하고 있다.

“우리 집 꼴을 보면 창피하고, 늘 집에 가기 싫어요. 앞 동네 아파트가 불에 타는 꿈을 꿀 때도 있어요”(사례 1)

“우리는 집도 없고 단칸방에 세 들어 살고 있는데, 여름에는 습기가 차고, 겨울에는 연탄가스 냄새로 고생을 해요”(사례 2)

“저는 지금까지 전세비 때문에 이사를 열번도 넘게 했어요”(사례 7)

“연탄갈기 싫어 항상 집에 늦게 들어가요”(사례 4)

“아침에 변소 가려면 전쟁을 치뤄야 해요. 여러 가구가 살기 때문이죠”(사례 6)

넷째, 빈곤한 가정형편은 효과적인 자녀양육방법을 알지 못하는 부모에 의해 청소년의 심리적 갈등을 야기 시킴을 알 수 있다. 빈곤층 부모는 효과적인 양육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부모 스스로 부지불식간에 자녀들의 반사회적인 행동과 비행을 강화하고, 그러한 일탈행동을 보였을 때도 효과적인 처벌을 하는데 실패하게 된다는 것이다(Sampson & Laub, 1994). 이러한 빈곤 청소년의 문제행동과 가족과정의 관련성 연구에서도 잘 나타나 있는데, 부모의 감정과 행동이 가족의 경제적 어려움과 청소년의 적응 즉, 문제행동간에 매개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 즉 경제적 어려움은 부모의 감정적 어려움으로 연결되고 이러한 부모의 심리사회적 문제가 청소년 자녀의 문제행동을 낳는다는 것이다(Conger 외, 1992; 1994). 이러한 효과적인 자녀양육방법을 알게 하는 부모교육 사회복지서비스가 잘 주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를 접할 시간이 없다는 데 문제가 있다.

“아버지는 늘 술만 먹고 들어오면 이유 없이 때려요”(사례 2; 사례 9)

“돈을 빌려 다니다 안되면 우리한테 막 화를 내어요”(사례 5)

“부모님이 다투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앓은 벽이 원망스러워요. 그 때마다 밖에 나와 담벼락을 거뒀어 차죠. 이 때 옆에 지나가는 녀석이 있으면 나도 모르게 싸움을 벌이게 되죠”(사례 8)

“말로 야단쳐도 될 것을 먼저 주먹부터 날아와요”(사례 7)

“어머니 잔소리는 이제 지긋지긋해요. 늘 똑같은 말만 해요. 나만 야단치면 되지 왜 아버지는 들먹거리는지 모르겠어요”(사례 3)

다섯째, 빈곤으로 인한 결손가족이 원인이 되어 가출로 이어지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들의 가출원인을 보면 가정 내의 불화가 주 요인이 되고 있다. 그리고 가정 내의 문제를 보면 구조적 결손과 기능적 결손을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의 입소청소년들이 편부, 편모, 계부, 계모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기능적으로는 방임, 학대의 결손을 보인다. 이러한 가족요인에 학교 부적응의 문제가 함께 첨가되면서 가출을 야기하게 되며, 그 외에도 친구요인과 심리요인 기타 다양한 요인이 차지하는데 오히려 가출의 주 요인보다 더욱더 해결하기 힘들다는 점을 고려할 때 쉽게 지나칠 문제는 아니다.

“병에 걸린 아버지가 불쌍하고요. 아버지 병 때문에 어머니가 신경을 좀 쓰게 되면 나에게 화를 내요. 이렇게 어머니와 충돌이 잦아 집을 나와 버렸죠”(사례 8)

“부모님이 이혼 직전에 있어 두 사람이 따로따로 살고 있는데, 두 사람 모두 꼴보기 싫어 집을 나왔어요”(사례 9)

“작은 아버지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가출했어요”(사례 10)

(2) 학교에서의 복지적 소외 양상

첫째, 빈곤은 청소년으로 하여금 학교교육을 계속 또는 완료하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을 갖게 한다.

청소년들은 교육과 직업을 사회이동의 통로로 생각하고 있다. 따라서 자신의 장래에 대한 높은 원망(포부)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학업에 대한 원망수준이 두드러지게 높다. 그러나 빈곤층 청소년의 경우 원망수준이 높을수록 이를 실현하

기 위한 현실적 조건 특히 가정의 경제사정과 격차로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 이들은 다른 젊은이들처럼 학교교육을 계속 또는 완료하지 못하는 상대적 박탈감이 심리적인 부담을 주는 상황에 있기 때문이다(김경동, 1993: 453-478). 실제로 많은 근로청소년들은 가정의 경제사정으로 상급학교에 진학할 수 없었던 데에 대한 좌절감을 가지고 있으며 직장에서의 낮은 수입, 불량하고 메마른 작업조건, 이기적인 기업주와 경영자에 대한 높은 불만을 가지고 있다(이상주, 1983: 31-45).

“제 주유소 사장 아들을 볼 때마다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느껴요. 아버지 잘 만나 과외를 하는데 한 달에 삼백만원이래요. 저는 악착같이 돈을 모아 검정고시를 본 후 대학에 갈꺼예요”(사례 5)

“저는 소년소녀가장인데요. 학비는 나오지만 공부가 하기 싫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은 못할 것 같아요. 이제 제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모실꺼예요.”(사례 4)

둘째, 빈곤은 학업을 잘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청소년들이 동원하지 못하게 한다. 한국사회의 청소년을 둘러싸고 있는 현실이 제도교육을 통한 학업에 중심을 두고 있기에 저소득층 청소년들의 경우 다른 계층의 청소년들과 마찬가지로 학업에 대한 부담감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런데 다른 계층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경제적 자원을 바탕으로 다른 사회적, 문화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빈곤층 청소년들의 경우 그와 같은 자원으로부터 대부분이 소외되어 있다(박문수 외, 1998)고 할 수 있다.

“저는 공부를 못하는 대요. 그것은 순전히 우리 집안이 가난하기 때문이에요. 공부방이 있나, 참고서가 있나 —”(사례 2)

“제 집안이 넉넉하다면 저도 과외를 받아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사례 6)

“저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 그림을 그리는 학원에 가려고 해도 돈이 없어 가지 못해요”(사례 7)

셋째, 학교 내에서 빈곤층 청소년들은 중산층 이상 청소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는데 제약이 있다.

“학교 선생님은 제 집안이 어려워서 그런지 저에게 대한 관심은 전혀 없고 딴 얘 들보다 더 야단을 많이 쳐요”(사례 6)

“제가 가출한 것은 집안 때문이지만 학교도 한가지 원인이 돼요. 중 3이 되니 약간 말썽만 부려도 저만 야단을 맞게 되고, 친구들로부터 공부 못한다고 왕따가 되곤 했어요”(사례 8)

“선생님은 늘 제가 힘이 세다고 하기 싫은 일만 골라 시켜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하고 난 뒤에도 전혀 칭찬을 해 주지 않아요. 부자집 아이들한테만 관심을 주는 것 같아요”(사례 1)

“부자집 아이들끼리 몰려 다니면서 돈을 쓰는 것 보면 막 화가 나요. 그래서 가난한 우리 아이들끼리 조직을 만들어 가끔 그들을 혼내줘요”(사례 3)

(3) 지역사회에서의 복지적 소외 양상

첫째, 빈곤지역 거주 청소년은 학습공간, 문화공간 등을 비롯한 문화복지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한다.

“우리 동네에는 우리끼리 담배 피우는 이지트가 되는 조그만 공터밖에 없어요. 밤에는 가로등도 자주 꺼져서 담배와 가스 마시기에 안성마춤이에요”(사례 1)

“문화공간요? 그게 무엇이예요?”(사례 2; 사례 4)

“비디오, 만화가게, 책방이 있지만 돈이 없어 들어가질 못해요. 게임방도 하나씩 생기는 것 같은데 이것도 그림의 떡이죠”(사례 3)

“집에서 텔레비를 보는 게 문화생활하는 것이죠”(사례 6)

둘째, 빈곤지역 거주 청소년은 고민거리에 대해 상담하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혜택을 거의 받지 못하고 있어 자포자기하는 경우가 많다.

“고민거리는 술과 담배로 때워요”(사례 1; 사례 5; 사례 8; 사례 9)

“가끔 목사님이 방문하여 상담하려고 하는데, 우리 집안 사정은 너무 모르고 엉뚱한 종교 이야기만 한참 해요”(사례 3)

“자기 고민은 자기가 풀어야지 누가 도와 주나요? 친구도 소용없어요”(사례 6)

셋째, 빈곤지역 거주 청소년은 자주 유해 환경(폭력, 알콜중독 등)을 경험하게

되어 사회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갖게 되거나, 성인들의 좋지 않은 모습을 학습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청소년 비행과 범죄 발생의 유력한 원인이 된다.

“술과 담배가 없다면 정말 살아가기 힘들어요. 특히 부자집 애들 노는 꼴을 보면 더 그래요”(사례 1)

“밤에 제 방 옆에 방에서 옆집 아저씨 아줌마가 씹씹거리릴 때는 정말 미치겠어요. 그때부터 잠이 오지 않아 문을 열고 나가 담배를 피워요”(사례 3)

“술, 담배 구하기는 아주 쉬워요. 청소년들한테 담배와 술을 팔 수 없대요? 동네 구멍가게는 그렇지 않아요”(사례 5)

3) 욕구 내용

(1) 소득욕구

빈곤층 청소년들은 기본적인 문화생활을 위한 재정적인 지원으로서 최소한의 용돈이 주어질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가끔은 화려한 소비생활을 위한 넉넉한 재정적인 지원을 요구하기도 한다.

“생활하는데 드는 비용 때문에 용돈이 하나도 없어요. 용돈이 조금만이라도 주어진다면 좋겠어요”(사례 6; 사례 7)

“내가 사고 싶은 것을 마음껏 사면 한이 없겠어요”(사례 4)

“세상에서 제일 비싼 구두와 악세사리를 하고 학교에 가고 싶어요. 그러기 위해 1주일에 한 장씩 복권을 사는데 복권에 당첨되길 바래요”(사례 6)

(2) 의료와 주거욕구

빈곤층 청소년들도 다른 모든 청소년들처럼 외모에 관심이 많아 외모와 관련된 의료욕구가 많으며, 주거욕구와 관련해서는 10사례 모두 현재 사는 곳을 떠나 자기의 독립된 방이 있는 집으로 이사 가기를 원한다.

“키가 작아 키를 키우는 수술을 무료로 받고 싶어요. 나중에 커서 값은 거예요”(사례 10)

“여기 얼굴에 있는 흉터를 고쳐 준다면 한평생 잊지 않을 거예요”(사례 7)

(3) 사회복지서비스 욕구

빈곤층 청소년들은 특히 부모들의 자녀양육에 문제가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또한 자신의 음주, 분노조절 등 행동수정과 관련된 사회복지서비스가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부부싸움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어디에 있나요?”(사례 8)

“술만 먹고 들어오면 이유 없이 때리는 아버지의 행동을 고칠 길은 없나요?”(사례 2; 사례 9)

“말로 야단쳐도 될 것을 주먹부터 날리는 아버지의 습관을 어떻게 고쳐요?”(사례 7)

“막무가내인 어머니의 신경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어요?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디에 가면 되나요?”(사례 3)

“술과 담배를 끊으려면 어떻게 하나요?”(사례 1; 사례 2; 사례 8; 사례 9)

“잔소리를 들을 때마다 화가 치미는데, 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사례 10)

(4) 교육욕구

빈곤층 청소년들도 가능하면 학교교육을 계속 받으려고 하며, 학업을 잘 하는데 필요한 자원을 지원 받길 원한다. 아울러 교사와 친구들로부터 인정을 받고자 하는 강한 욕구가 있다.

“저는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누가 조금만 보태준다면 지금이라도 대학에 가기 위한 점정고시학원에 다닐 수 있을 거예요”(사례 5)

“저는 공부를 못하지만, 공부방과 참고서가 주어진다면 잘 할 수 있을 거예요”(사례 2)

“저도 과외를 받으면 공부를 잘 할 수 있을 거예요”(사례 6)

“저는 가출했지만 다시 학교에 가고 싶어요. 영어학원에 다니고 싶고, 한자도 배우고 싶어요”(사례 9)

“학교 선생님이 저에게 조금만 관심을 주어도 좋겠어요”(사례 6)

“중 3이라고 너무 진학 위주로 수업을 하는데 반드시 공부만 잘해야 하나요? 친구들로부터 공부 못한다고 왕따가 되길 싫어요”(사례 8)

“선생님은 학생이 하기 싫은 힘든 일을 모든 학생들이 다 한번씩 골고루 하도록 하면 좋겠어요. 그리고 하기 싫은 힘든 일을 하고 난 뒤에는 반드시 칭찬을 해 주면 좋겠어요. 부자집 아이들과 차별을 하지 않으면 좋겠고, 부자집 아이들 부모들이 학교에 자주 오지 않도록 학교에서 강하게 막으면 좋겠어요”(사례 1)

(5) 직업육구

학업에 대한 진학보다 일찍 직장을 구하여 가게를 돕든지, 독립된 생활을 하고자 하는 빈곤층 청소년들이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직업훈련과 각종 직업교육에 대한 지원이 제공되어야 한다.

“저는 만화가가 되고 싶어 그림을 그리는 학원에 다니고 싶어요. 저처럼 돈이 없어 학원에 가지 못하는 가난한 학생들을 위한 학원비가 국가에서 지원되면 좋겠어요”(사례 7)

“주유소 일 보다 자동차 수리 기술을 배우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아요?”(사례 5)

(6) 문화육구

빈곤층 청소년들도 다른 모든 청소년들처럼 오락생활과 문화생활을 하기 원한다.

“공짜로 마음껏 춤을 출 수 있는 곳이 우리 동네에 있으면 좋겠어요”(사례 1)

“저도 여자 친구와 함께 영화도 보고 싶고, 춤도 추고 싶어요. 그리고 연극도 하고 싶어요. 그런데 그런 장소가 있나요?”(사례 3)

“무료로 빌려주는 만화가게, 책방이 있으면 좋겠고, 게임방도 있으면 좋겠어요”(사례 2; 사례 3; 사례 4; 사례 7)

4. 빈곤층 청소년을 위한 정책 과제

빈곤층 청소년들의 복지적 소외 양상은 매우 다양할 뿐만 아니라, 소외를 해결하고자 하는 욕구도 상당히 다양함을 알 수 있다.

빈곤층 청소년의 연구에서 지금까지는 빈곤집단을 빈곤의 경제적 지표에 의한 동질성의 집단범주로서 경제적, 재정적 자원의 부족이라는 공통특징을 가진 성원들로 보고 이들의 행동을 일반적으로 공유하는 사회적 가치와 이에 도달할 수 있는 수단의 결여에 따른 체념, 소외감, 비행 등과 연관시키거나, 아니면 처음부터 낮은 열망수준, 동기결여에서 오는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빈곤층 청소년들은 그가 처해있는 객관적인 상황을 주관적으로, 의식적으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결정지며 동일계층 내에서도 행동 및 태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김영란, 1999: 22).

따라서 빈곤층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정책은 보편적인 복지정책과 함께, 각자 독특한 청소년의 욕구에 따른 행동 가능성을 고려하여 다양한 형태의 복지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1) 공공부조의 확대와 가족수당제도 도입을 통한 재정적 지원; 청소년카드의 활용

빈곤층 청소년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소득보장이 우선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조가 제대로 작동되어야 한다.

공공부조의 핵심인 현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은 인구학적 조건(65세 이상, 18세 미만 등)을 두어, 일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없어 일을 못하는 빈곤자들을 배제하고 있으며, 자산기준으로 소득기준과 재산기준을 동시에 만족해야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고 재산 기준을 겨우 초과하는 사람은 수급자가 될 수 없고 그 반대의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 또한 소득기준으로 지역별 가구규모별 가구유형별 최저생계비가 적용되지 않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1인당 개념의 최저생계비가 적용됨으로써 가구규모가 적은 도시지역 가구는 선정에

서 누락되고 있다.

자활급여대상가구에게는 생계비가 지원되지 않고 있어, 자활급여대상가구의 절반 가량('96년 약 47.5%)이 근로능력이 없는 가구임에도 불구하고 생계급여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현금급여인 생계비가 지급되고 한계계층 실업자에게는 생활안정자금이 용자되고 있으나 자활급여대상자에게는 현금급여 또는 생활비 용자지원제도가 없어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조흥식, 1999: 12).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1999년 8월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미는 우리가 단시일 내에 서구 선진국 수준의 복지 제도를 따라가기 위하여 단지 생활보호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자는 것에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현행 기초생활보장제도 하에서 합리적 방식으로 변경할 수 있는 것은 당장 시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첫째,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판단기준을 합리화(현재는 기초생활보장대상가구만 부양능력이 없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하여야 한다. 둘째, 재산기준의 융통성 있는 적용(소득이 전혀 없는 가구도 재산이 기준액을 초과하면 대상자가 될 수 없음)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셋째, 자활급여대상가구에 대한 연중 소득 수준별 차등 생계급여비를 지원하여야 한다. 또한 이러한 현행 제도 하에서의 개선방안을 기초로 하여, 효율적인 소득 및 재산과약 방법이 개발되어야 하고, 자활능력이 있는 가구원에게 실시할 효율적인 자활급여 프로그램 구축을 위해서는 행정 전산망 구축과 사회복지전문요원의 확대 배치와 같은 인프라가 조기에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렇게 가구 당 기초생활보장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빈곤층 청소년들 개개인에게 주어지는 것은 고등학교 때까지 학비 보조와 함께 학용품비 지급이 전부로서 이들의 건전한 소비활동에 드는 사교육 비용은 지원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를 위해서는 청소년들에게 필요한 최소의 소비활동비를 고려한 가족수당제도가 도입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청소년들에게 지급될 가족수당은 현금급여 보다 청소년카드(youth card)를 통한 급여가 바람직할 것으로 본다. 청소년카드 활용의 장점은 ① 용돈절약 및 자발적인 자기개발 지원 ② 긍정적인 사회적 정체감과 책임의식 형성 ③ 가장 인정

받는 청소년 신분증 ④ 건전한 소비생활 유도 ⑤ 사회생활에 대한 적응력 향상 등을 들 수 있다(한국청소년개발원, 1997: 101-105).

따라서 유럽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이러한 청소년카드제도를 도입하여 빈곤층 청소년들에게는 일정 한도 내의 가족수당 분을 정부에서 제공하고 비빈곤층 청소년들의 비용은 부모 등 보호자가 지불하도록 함으로써 급여에 대한 낙인(stigma)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2) 안정적인 주거생활 보장과 학습공간 확보

우리나라의 특수한 주거상황으로 인해 현재의 전·월세 문제, 빈곤층 청소년가족의 주거안정은 단순히 물량위주의 주택공급이나 민간자본 동원 중심의 정책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첫째, 공공임대주택 위주의 주택정책 실시, 둘째, 주택 공개념을 도입하고 가구원 수와 세대유형, 소득수준에 따른 최저, 적정주거기준을 마련, 셋째, 저소득층 세입자들의 법적 지위 강화, 넷째, 빈곤가족을 대상으로 한 종합 주택금융제도 개선, 다섯째, 임대차보호법의 엄격한 적용 등을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주거보장정책과 함께 상대적 빈곤감과 사회적 소외감으로 학습목표를 포함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하지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빈곤층 청소년들에게 학습공간을 사회가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러한 학습공간의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야간공부방인데, 이는 단순한 공간 제공과 아울러 자원봉사자를 통한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상담을 병행 실시함으로써 이러한 지역의 청소년들이 사회적 열등감과 소외감을 극복하여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청소년 공부방은 대안 교육적 기능 뿐만 아니라 일종의 저소득층 청소년의 비행을 예방하는 역할도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박문수 외, 1998).

그러나 구청이나 동사무소 공간을 활용하여 독서실 형태의 청소년 공부방이 일종의 운영비를 보조받으며 운영되고 있지만 학습에 흥미가 없는 청소년들에게 공부방이 학습공간이 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최소한 전문 학습지도 및 생활고충상담을 병행 실시할 수 있는 전문가가 1명은 배치되어 전문서비스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3) 교육지원 확대

빈곤가족의 자녀에 대한 교육욕구는 상당히 강하다. 빈곤세습의 한 원인이 낮은 교육수준인 점을 감안하면 빈곤의 악순환을 예방하는 차원에서도 한계빈곤층의 자녀들에 대한 학비지원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앞으로 빈곤층 청소년들을 위해 정부는 학비지원의 대상을 확대하여 전문대학을 포함하여 대학까지도 학비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그리고 산업체와 대학간의 교육네트워크를 확대하고 산업대학이나 일반대학에 진학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강화해야 한다(김영란, 1999: 23).

4) 사회복지서비스 프로그램의 개발

빈곤으로 인해 자녀가 사춘기가 되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가게 될 때 자녀를 통제할 수 있는 부모의 능력과 지식이 부족한 관계로 그들을 방임해 두는 경우가 매우 많다. 이러한 결과 청소년기에는 역할혼동과 갈등에서 빚어진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상담과 교육을 통해서 청소년기의 특성과 그 시기에 따르는 신체적, 심리적, 사회적 변화에 대해서 알려주며 그러한 긴장과 갈등을 해소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프로그램 개발로서는 일찍부터 직업교육을 바탕으로 하는 생애교육과 함께 자녀가 학교에 적응하는 데 곤란의 원인이 되는 사회적·정서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자녀의 사회생활 원조에 중점을 두는 학교사회복지(school social work), 전문상담교사제 등의 학교 내 복지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한다. 특히 학교사회복지는 빈곤, 가정문제, 대인관계 등의 사회적 역기능의 문제로 인하여 학교생활에 정상적으로 적응할 수 없는 학생들을 예방하고 이들을 돕는 전문분야이기에 이 사업을 활성화하게 되면 빈곤으로 인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하고 치료함은 물론 학교부적응과 중퇴 등으로 인해 나타나게 되는 빈곤의 세습도 예방할 수 있게 된다(김영란, 1999: 24).

그리고 상담기관에서는 빈곤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자기성장 프로그램에 대한 개발과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다양화된 사회에서 보다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직장 및 사회적응 교육을 효과적으로 실시해야 할 것이다.

5) 직업훈련의 지원과 다양화

영세하청공장, 주유소 취업이나 배달 등을 통해 가게를 보조하는 대다수 빈곤층 청소년들은 나쁜 조건으로 노동하고 있다. 이들을 좋은 노동조건으로 취업시키기 위해서는 공공행정에 의한 적극적인 고용창출과 기술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사업체에 의한 적극적인 고용기회를 창출하고, 빈곤층 청소년들에 대한 직업기술교육을 확대 실시하여 전문기술을 취득하도록 지원한다. 기존 직업훈련소의 훈련 직종을 다양화하고 직업훈련 기간동안 생계비에 대해 국가가 전액 지원함으로써 청소년으로 하여금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한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가능성을 스스로 탐색하고 그 구현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직업진로 교육이 필요하다. 즉 근로청소년을 위한 능력개발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것도 한 가지 방안이다. 직업교육 전공자, 사회교육 전문요원, 직업전문상담원 및 관계행정기관의 지도요원이 협동으로 근로청소년의 성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한다면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중복 외, 1998: 180-184).

6) 문화복지 활성화를 위한 문화공간의 확보

청소년들에게 여가생활은 가정생활과 학교생활만큼 중요하다. 여가는 가정, 학교, 직장 내지 사회에서 개인에게 주어진 노동이나 의무를 실현하고 난 후 자신의 의사대로 할 수 있는 활동일 뿐만 아니라 휴식, 회복, 오락, 자기실현, 기분전환, 지식향상, 기술개발, 사회참여를 제공해 주는 기회로 정의할 수 있다(Wylson, 1980).

빈곤층 청소년들의 여가문화를 위한 시설의 경우 빈곤층 지역에는 거의 없으므로 방과 후에 이러한 시설을 통하여 자발적으로 여가문화를 즐기기가 어렵다. 따라서 저소득지역의 문화공간은 대안적인 청소년 여가문화의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의 시도와 함께 자율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여러 유형의 민간 공동체운동이나 지역사회개발운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다.

구체적인 예로서 빈곤층 밀집주거지역에 위치해 있는 사회복지관내에 청소년들의 욕구에 맞는 청소년 카페, 콜라텍 등의 형태로 모든 청소년들이 전문 인력의 보호 하에서 여가시간을 보낼만한 열린 공간을 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7)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에의 참여 확대

빈곤층 청소년들은 가정이나 학교 등의 사회 환경에서 부정적인 경험이 많고 인내심이 부족하며 받는데 익숙하고 나누지 못하는 등의 빈민 지역 주민들의 특성을 그대로 지니고 있기 때문에 주체적인 활동을 잘 하지 못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 내에서의 봉사활동을 하게 함으로써 청소년들도 자긍심이 생기고 이들에 대한 지역주민의 인식도 긍정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

지역 내 중증장애인이거나 독거노인과의 결연 등을 통해 빈곤층 청소년들이 지니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분노나 자기비관의 부정적인 인식을 줄일 수 있으며 청소년들 스스로도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도울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여 청소년 집단이 긍정적 지지체계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할 수 있다.

따라서 장기적으로 빈곤지역 청소년들 스스로가 한 모임의 주체임을 명확히 하고, 수동적이고 소극적인 자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의 한 구성원으로 역량을 키우고 발휘할 수 있는 기회로서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지역사회 봉사활동의 관리는 지역사회복지관, 지역사회봉사단체 등에서 맡을 수 있을 것이다.

8) 청소년 관련 기관간의 네트워크 구성

연계망 구성을 통해 다양한 자원 및 정보를 공유하며, 전문화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빈곤층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른 사

회복지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어떤 한 기관에서 복잡하고 다양한 청소년복지서비스 모두를 책임질 수는 없다.

따라서 빈곤지역내의 청소년 상담실, 자원봉사센터, 가출청소년 쉼터, 직업보도시설, 그룹홈 등의 청소년 관련 시설, 그리고 중·고등학교와의 연계 및 의뢰체계를 이루어 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5. 맺음말

빈곤관련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빈곤의 실태와 구조적 원인 파악, 그리고 이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 개발에 관심을 두었다. 빈곤이라는 문제가 자본주의의 구조적인 모순을 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빈곤의 해결을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사회구조적 문제의 해결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회구조적 문제도 결국에는 개별적인 문제로 환원되어 개개인의 삶에 영향을 줄뿐만 아니라 다양한 삶의 영역에 구체화되어 나타나기 마련이므로 각 개별적인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개입 전략을 갖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볼 때, 빈곤문제를 단순히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만 고찰할 것이 아니라 빈곤층 개개인의 심리사회적인 측면도 동시에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아직도 우리 사회는 한시적 생활보호가 등장할 정도로 빈곤층에서는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보다 많은 청소년들이 빈곤으로 인해 심리사회적 문제를 겪을 가능성이 높아지며, 빈곤층 청소년들의 복지적 소외가 증가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뜻한다.

미국이 1960년대에 대빈곤 전쟁(War on poverty)을 국가적으로 선포해 시행할 때 예산의 상당부분을 빈곤가정의 자녀들을 위한 사회복지서비스 영역에 지출하였다. 이는 빈곤을 한 개인의 소득보장이라는 차원에서만이 아니라 가정 전체의 위기로 간주함으로써 빈곤이 개개인의 삶의 영역에 미치는 양상을 고찰하고, 빈곤해결과 관련된 가족 구성원 개개인의 욕구를 분석하여 보다 직접적인 빈곤문제에 대한 개입이 이루어지게 한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도 현재의 사회양극화 위기에서 청소년들이 빈곤으로

인해 신체적, 정서적, 지적, 사회적으로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지 않도록 하고, 나아가 빈곤세습의 고리를 끊기 위해서는 빈곤층 청소년을 단일범주로 생각하지 말고 그들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전문가들의 관심과 정부의 과감한 투자와 같은 다각적인 정책적 집행을 필요로 한다고 하겠다.

요컨대, 무엇보다도 빈곤층 청소년의 복지적 소외문제는 빈곤층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빈곤에서 비롯됨을 온 사회가 자각하는데 에서부터 출발하여 더불어 잘사는 건강한 복지의식을 확대해 나가며, 이를 바탕으로 하여 빈곤층 청소년의 복지적 소외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과감한 정부의 가시적인 대책들과, 민간의 보완적 활동들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본다.

- 김경동(1993), “근로청소년의 사회의식과 노사관계관”, 《한국인의 가치관과 사회의식》, 박영사.
- 김영란(1999), “저소득층 청소년복지에 관한 연구”, 《청소년복지연구》, 한국청소년복지학회.
- 김일철 정영일(1977), “한국 영세농에 관한 사회·경제적 연구,” 《사회과학연구보고》(1), 서울대 사회과학연구소.
- 김정자·변화순·윤영숙(1990), 《영세지역 가족관계 및 사회적 연결망에 관한 연구》, 한국여성개발원.
- 노혁(2004), “빈곤계층 청소년의 자립능력개발을 위한 복지지원 방향-생활 및 자립지원시설 실태를 중심으로-”,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1호, 한국청소년학회.
- 박문수 외(1998), 《저소득층지역 청소년 여가문화와 소집단 활성화》, 집문당.
- 박현선(1998), “빈곤 청소년의 학교 적응유연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 서울특별시립 신림 청소년쉼터(1999), 《보호현황분석 자료집》(내부자료).
- 윤정혜(1998), “실직자가정의 실태와 지원요구도”, 《1998년 한국가정관리학회 추계 학술대회 발표자료집》.
- 이상주(1983), “기성세대와 청소년”, 《현대사회와 청소년》, 아산사회복지재단.
- 이순형·신양재·김영주(1991), “빈곤가정 아동의 환경지각 연구”, 한국아동학회, 《아동학회지》, 12(1).
- 이영환(2003), “새 정부 보건복지정책 과제: 이제는 복지국가다” 《한겨레신문사·참여연대 공동주최 연속토론회 자료집》.
- 이장원 외(1998), “실업과 빈곤화”, 한국노동연구원, 《정책연구》, 98-25.
- 이종복 외(1998), 《현대청소년복지론》, 양서원.
- 이주희(1998), “빈곤근로자의 일과 생활”, 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정책연구》, 98-12.
- 전재일·조운희(1990), “집단경험이 빈곤, 결손가정의 청소년의 사회심리적 특성에 미치는 영향”, 대구대학교, 《사회복지연구》, 18.
- 조흥식(1996), “한국빈곤가족문제의 현황과 대책”, 《빈곤가정 없는 21세기 한국》, 가족관련학술단체협의회.
- 조흥식(1998), “사회병리현상인 가족해체에 대한 복지대책”, 《서울시립대 실업과 가족해체 심포지엄 자료집》, 서울시립대.
- 조흥식(1999), “빈곤과 사회보장: 공공부조제도에 대한 평가를 중심으로”, 《신정부의

- 사회정책평가, 공동정책토론회 발표자료집》, 한국사회정책학회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조흥식(2005), “빈곤의 심화와 사회복지: 정책 대안”, 《시민과 세계》, 제7호, 참여사회연구소, 당대.
- 최윤정 · 이시연 · 권현진(2004). “빈곤청소년의 적응 요인에 관한 연구”, 《청소년학연구》, 제11권 제3호, 한국청소년학회.
- 한국노동연구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1999), 《실업대책보고서》.
- 한국청소년개발원(1997), 《청소년카드제도를 위한 기초조사》.
- Brooks-Gunn, J., Kleanov, P., Liaw, F. & Duncan, G. (1995), Toward an Understanding of the Effects of Poverty upon Children. In Fitzgerald H. E., Lester, B. M. & Zuckerman B. (Eds.), *Children of Poverty- Research, Health, and Policy Issues*. New York: Garland Publishing Inc. Conger, R. D.
- Conger, K. J., Elder, G. H. Jr., Lorenz, F. O., Simons, R. L., & Whitbeck, L. B. (1992), A Family Process Model of Economic Hardship and Adjustment of Early Adolescent Boys, *Child Development*, 63.
- Conger, R. D., Ge, X., Elder G. H., Lorenz, F. O. & Simons, R. L. (1994), Economic Stress, Coercive Family Process and Developmental Problems of Adolescents, *Child Development*, 65.
- Huston, A. ed. (1991), *Children in Poverty: Child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 Cambridge, MA.: Cambridge University Press.
- Orcutt, B. A. (1977), “Family Treatment of Poverty Level Family,” *Social Casework*, 58.
- MaCormick, M. C. & Brooks-Gunn, J. (1989), Health Care for Children and Adolescents In H. Freeman & S. Levine (Eds.), *Handbook of Medical Sociology*. Englewood Cliffs, NJ: Prentice Hall.
- Sampson, R. J. & Laub, J. H. (1996), Urban Poverty and the Family Context of Delinquency: A New Look at Structure and Process in a Classic Study, *Child Development*, 65.
- Vosler, N. R. (1996), *New Approaches to Family Practice: Confronting Economic Stress*, Thousand Oaks, California: Sage Publications.
- Wylson, A. (1980). *Designs for Entertainment*, Boston: Butter Worth.

The Qualitative Study on Poor Youth's Aspects of Welfare Alienation

Heung-Seek Cho*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poor youth's aspects of welfare alienation and suggest the alternatives of social welfare policy for poor youth. To achieve this goal, firstly, this examined the general aspects of welfare alienation. And secondly, this paper analyzed the poor youth's aspects of welfare alienation and their welfare needs through the qualitative study, which was taken in-depth interview to ten youths. Finally, this paper suggested the alternatives of social welfare policy for poor youth.

The alternatives of social welfare policy for poor youth are as follows: 1) enlarging public assistance benefit for poor youth and establishing family allowance system 2) securing stable housing and facilities for study 3) expanding education support for poor youth 4) developing diverse social welfare programs 6) establishing youth culture center for culture welfare 7) enlarging opportunities of youth participation to community organization 8) networking between youth centers and between youth centers and local government.

Key words: poor youth, welfare alienation, social welfare policy

* Professor of Social Welfare, Seoul National University. Research Area: Welfare for Poor Family, Social Welfare Services, Qualitative Study on Social Work Practice, Welfare for the Disabled. Major Publication: "Family Welfare" (co-work, 2006), "Gender and Welfare"(co-work, 2006), 'History of Korean Welfare for the Disabled" (co-work, 2006), "Comparative Study on Poverty Policy" (co-work, 2005), "School Social Welfare" (co-work, 2004), "The Social Impact of the Economic Crisis in Korea" (co-work, 2001), "Industrial Social Welfare" (co-work, 2000). E-mail: chohs@snu.ac.kr